

메시지 4

참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함

성경: 요 15:1, 4-5, 7, 요일 2:6, 27-28, 3:24, 4:13, 15, 롬 8:4

I. 주 예수님은 “나는 참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셨다 — 요 15:1상, 비교 계 14:18.

- A. 가지들(아들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이 있는 이 참포도나무(아들)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이다.
- B. 이 유기체는 그분의 풍성으로 자라며,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표현한다.

II. 포도나무 안에 있는 가지들로서 우리는 포도나무 안에 거해야 한다 — 요 15:4-5.

- A.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연결의 문제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교통의 문제이다 — 고전 1:9, 30.
- B.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포도나무 안에 있는 가지들이라는 분명한 이상을 보는 것에 달려 있다. 일단 자신이 포도나무 안에 있는 가지들이라는 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우리와 주님 사이의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 — 요 15:2.
- C.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다 — 요일 2:6, 27-28, 3:24, 4:13, 15.
- D.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조건이다 — 요 15:5상.
- E. 우리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 요 15:5하.
- F. 가지들이 포도나무 안에 거할 때에만, 포도나무가 가지들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III.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한 기름바름의 내적 가르침에 주의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한다 — 요일 2:27.

- A. 우리는 주님의 피의 씻음을 체험하고 기름 바르시는 영을 우리의 내적 존재에 적용함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신성한 교통 안에 거한다 — 요 15:4-5, 요일 1:5, 7, 2:20, 27.
- B.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기름부음 받으신 분이시자 기름 부으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로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을 내적인 기름바름으로 누린다 — 히 1:9, 3:14, 고후 1:21-22.
- C. 기름바름은 우리 안에 계신 복합되신 영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바른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게 된다. 기름바름은 생명의 내적 감각, 내적 의식에 의해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생각을 그분의 지체들에게 전달해 준다 — 시 133편, 고전 2:16, 롬 8:6, 27.

IV.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과 한 영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연합된 영 안에 사는 것이다 — 고전 6:17.

- A. 신약의 본질은 하나로 함께 연합된 두 영, 곧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이다 — 고전 6:17, 롬 8:4.
- B. 이 두 영의 연결은 성경에서 가장 깊은 비밀이다.
- C. ‘한 영’이라는 표현은 그 영이신 주님과 우리 영의 연합을 가리킨다 — 고전 6:17.
 - 1. 영, 곧 우리의 영과 주님의 영이 한 영으로 연합된 이 영은 주님의 영이자 우리의 영이다 — 롬 8:4, 고후 3:17, 고전 15:45.
 - 2.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는 것, 주님께 기도하는 것,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 등 우리의 모든 영적 체험은 이 연합된 영 안에 있다.
- D.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은 연합된 영, 곧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이 연합된 영이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초점과 관련된다 — 엡 3:5, 9, 1:17, 2:22, 5:18, 6:18.
 - 1.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 됨으로써, 모든 것을 포함한 분이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다 — 고전 1:2, 24, 30, 2:7-8, 10, 3:11, 5:7-8, 10:3-4, 11:3, 12:12, 15:20, 23, 45, 47.
 - 2.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취할 수 있다.
 - 3. 누구든지 주님과 한 영인 사람에게는 공급이 한량없다.

- E. 연합된 영은 하나님과 한 영이고,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영이다 — 요일 5:11, 벧후 1:4.
1.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사람의 생명, 곧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이며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인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갈 2:20, 빌 1:19-21상.
 2. 하나님-사람의 생활은 두 영이 하나로 함께 연결되고 연합된 생활이다.
- F.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그분이 생명 안에서 하나인 것을 함축한다 — 요 3:16, 요일 5:12.
- G.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오늘날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내주시고 우리의 영과 연합되신 그 영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 고후 3:17, 고전 15:45, 6:17.
- H. 성경은 우리에게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할 것을 요구한다 — 롬 8:4.
1. 모든 것에 대한 열쇠는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시고 우리의 영과 한 영이 되신 놀라우신 영 안에서 발견된다.
 2. 영 안에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 존재에 침투하심으로써 우리를 통해 표현되실 때까지 우리를 채우시고 적시시도록 해 드리는 것이다 — 엡 3:17.
 3.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상호 거함은 주님과 한 영인 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V. 효과적인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 결과이다 — 요 15:7.

- A.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과 협력하고 동역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그분 자신을 표현하시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협력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자신 안에서부터 그리고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과 그분의 갈망을 표현하시도록 허락해 드릴 것이다 — 롬 8:26-27, 약 5:17.
1. 기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흐름이며, 사람과 하나님의 상호 접촉이다.
 2. 기도의 참된 의미는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 자신을 흡수하는 것이다 — 엡 6:18.
 3.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사는 길은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 골 1:27, 3:4, 빌 1:20-21상.
 4. 우리에게서 우리를 주님과 접촉 안으로 이끄는 그러한 기도, 곧 우리를 우리 영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게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 딤후 4:22, 고전 6:17.
- B.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는 그분의 말씀에서 나온 갈망이 있을 것이다 — 요 15:7, 요일 5:14-15.
1. 우리는 주님의 느낌을 만지고 그분의 의도를 이해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그분의 갈망을 가질 것이다.
 2. 그분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될 것이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일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갈망에 따라 기도할 것이다.
 3. 주님은 이러한 종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 데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VI.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교회생활을 할 수 있다 — 요 15:4-5, 고전 1:2, 9, 30, 12:27.

- A. 우리는 연합된 영 안에서 사는 것에 의해서만 진정한 교회생활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교회생활을 위해 이 연합된 영 안에 머물러야 한다 — 고전 1:2, 12:27.
- B. 교회생활은 서로 사랑하는 생활이다 — 요 15:12, 17.
- C.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함께 가지들이 된 이들 사이의 놀라운 교통에 참여한다 — 요 15:4-5, 요일 1:3-7.